

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 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김주현(광운대), 김후(한양대), 박우정(한국외대), 오지수(성균관대)

SDF2014

황경식, 손화철 (HWANG Kyung-Sig, SON Wha-Chul)

디지털 유토피아 vs. 디지털 디스토피아 (Digital Utopia vs. Digital Dystopia)

김성준: 이번 세션 시작하기 직전에 휴식시간에
혹시 뒤에 나온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큰 두유를 마시는 화면 보셨나요?

Sungjun Kim:
**Have you watched the video just before this session,
right after the intermission,
the video of a young man drinking a large soya milk?**

그 분이 사실은 요즘 뜨고 있는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씨로
요즘 TV에서 많이 얼굴을 비추며 연예인 못지 않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Actually, he is ex-professional gamer Jin-ho Hong,
who's getting a lot of attention lately on TV
and as much popular as some celebrities.**

그 유명한 홍진호씨가 지하철을 타고
이만큼 커다란 두유를 쪽쪽 빨아 마시고 별 기이한 행동을 하고 그래도
주변의 지하철 승객들이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스마트 폰만 본다는 내용입니다
**The video is about him drinking huge soya milk and
doing such odd behavior in the subway,
while passengers around him don't give a single concern about him
and only look into their smartphones.**

저희가 서울 디지털 포럼을 위해 기획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It's a video we made for SDF 2014, and you might feel this as well.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떤 시간이건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은 사실이지만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granted u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no matter where we are or what time it is; but think about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심지어는 나의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has the time spent with the ones right next to us, our neighbors,
or even family increased or decreased?**

실제로 우리는 그런 소통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can actually feel that for the later one, communication has decreased.
So, we are about to talk about ‘communication’ right now.**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황경식 교수 모셔서

소통에 대한 단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Let me introduce professor emeritus Kyungsik Hwang,
of Seoul National Univ, to listen about his thoughts on communication.
Please give him an ovation.**

황경식: 방금 소개 받은 서울대 황경식 교수입니다

**Kyungsik Hwang: As you have just heard,
I am Kyungsik Hwang from Seoul National Univ.**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Before giving you the speech today,
I'd like to give a confession and obtain your consent as well.**

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컴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컴맹 대표로 나왔습니다

**I, please don't be surprised, am computer illiterate.
I'm here as a representative for computer illiterates.**

지금 현재 스마트 폰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I'm not using any smartphone, too.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나이 70을 앞두고서 가끔 정신이 깜빡 깜빡 합니다

**And, I reached retirement age some year ago,
so I'm sometimes out of my senses having age 70 near ahead.**

그래서 오늘도 컨닝 페이퍼까지 준비하고 나와서

이 페이퍼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es, so I have this cheat sheet with me, too.

Please forgive me for utilizing this.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보 유토피아

정보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다 생각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Today, I'm going to think, with you, about what we have to prescribe
in order to become information-ideal society, the 'Information Utopia'.**

So I'd like to share the thoughts together

because you must have thought about this before.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처방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할 수 있는 혁신적 지혜라고 할 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nd if, the prescription is successful,

it will be such an innovative wisdom

which can rescue our society indeed.

제 잠정적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My tentative conclusion is as follows;

정보 기술이 사람들간의, 인간들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감정소통이라는 공공선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 잠정적인 결론이고

그 세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has to pursue public virtue of
both normal and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I'll elaborate on more

.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구촌사회를 주도하는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s you know,

South Korea is known as an IT powerhouse that leads the global village

그런데 문제는 기술 문명에 부합하는 정신 문화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Do we possess a moral culture that is appropriate
to the high technological degrees we have achieved?**

첨단문명과 후진문화간의 시간적인 간격,

혹시 그 간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I've come to imagine that our society is moaning in pain,
between the time-gap of cutting-edge civilization and less-developed culture**

첨단문명과 후진문화간의 그와 같은 간격을 메우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처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Let's think about it, together –
the prescription and the strategy to fill this gap.**

저는 수년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정보통신정상회의에
시민사회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Several years ago, I have attended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held at Lausanne, Switzerland as a member of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그 정상회의의 화두는, 우리가 오늘날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정보기술,
즉 IT라는 용어는 정보소통기술, ICT라는 용어의 줄임, 약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main topic of the conference was, about the word 'Information Technology'.
Today, the word 'IT' we are using customarily can be regarded as
the abbrevi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그것이 오래 사용되어서 관행화 되고 말았지요

The IT has become customary, just because of its long usage.

그런데 그와 같이 약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목적인 소통이라는 그 목적의 가치를 망각하고 훼손하며
기술 일변도로 치닫고 있고,

**However, by using such abbreviation
we have forgotten and undermined the original purpose, communication.
And also we are rushing into more and more technology-oriented society.**

그래서 결국 오늘날 정보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보 디스토피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Yes, we might be eventually facing 'Information Dystopia' now,
rather than 'Information Utopia'.**

그 외의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소통이라는 공공선을 명심해야 되고
**From these arguments, we realized that we have to keep in mind,
the public virtue of communication.**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IT라는 말보다
이제는 목적가치까지 포함하는 ICT라는 용어를 쓰기로 공동결의 한 적이 있습니다

For this, we had made a joint resolution to replace the word IT with ICT, in order to includ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technology itself.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보도 과거의 농업,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도구요 수단입니다

As you all know, information is also a tool and means for production, just like the conventional ones, such as agriculture and industry.

문제는 어떤 목적가치를 지향하는 도구이냐?

그 목적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정보기술인지를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What's important, though, is what kind of fundamental value the tool purposes.

We have to thoroughly reflect on what is the value, the value that IT is really for, I think.

핵심가치인 소통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Always keeping the fundamental value of communication in mind,

정보의 홍수속에 함몰되지 않고 소통이라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나침반과 등대를 잊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not getting lost in the cataclysm of information

grasping the compass and remembering the lighthouse that leads to the destination named communication.

This is of utmost importance.

그래서 저는 오늘 정보 유토피아로 가는 세 가지 성찰적 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So, I'd like to think with you about the three tasks to reflect upon, which will lead us to Information Utopia.

우선 그와 같은 성찰적 과제의 첫 번째 과제는

정보 유토피아의 인프라 토대로써의 정보사회 정의의 구현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d like to say that

as the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Utopia,

fulfillment of justice in information society is highly pressing matter.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보재를 공유하고 동참하며,

정보재가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회,

We have to think thoroughly about, if every member of our society shares or takes part in information property and if it is distributed fairly,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갖춘,
그런 정보사회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ich is indeed the minimum requirement for ideal society.
Are we living in such society, where the justice of information society is served?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Let's just think about our reality.

우리 현실은 자본의 횡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보의 양극화, 정보의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The reality is, as many people already talked about,
under the despotism of capital, digital polarization,
the digital divid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worse.**

그래서 어제부터 논의되었었습니다만은
디지털 디바이드로 우리 사회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So yes, as it is being discussed since yesterday,
I say that our society became afflicted with the digital divide.**

아시다시피, 4 대 IT 소외계층,
농어민, 빈곤한 자, 노인,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보사회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ink about the four information-underprivileged classes:
farmers or fishermen, the poor, the aged and the disabled.
They are living outside the information society.**

단지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일부의 재벌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서
정보의 기본적인 생산, 분배, 저장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Not only for consumption goods but a few conglomerates are
also monopolizing information, exercising enormous influence
over the basic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torage of information.
I think this hinders normal, democratic communication in societies.**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정보재에 대한 과거의 소유 관념을 청산해야 할
절실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It is the time, at this place right now, to clear out
the old-fashioned idea of possessing information property.**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보재는 과거의 유형적인 산업체와는 다르지요
**As you all might know as well, information goods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angible industrial goods.**

유형적인 산업재는 일부의 사람이 많은 재화를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재화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어집니다

For the conventional industrial property, if a few possesses a lot, the others lost the accessibility to that.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재화라고 생각합니다

However, information is immaterial property, which has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public ownership in infinite degrees, which only depends on our attitude towards it.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피카소의 그림이 일부의 사람이 향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Symphonies by Beethoven, paintings by Picasso; there is no reason at all for us to exclude people from enjoying it, just because some other people are enjoying it.

그래서 소유 관념의 변화,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열린 소유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Therefore, changing the concept of possession and having open-mindedness are required.

두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는 익명성의 함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And, this is the second task.

We have to overcome the trap of anonymity.

우리뿐 아니라 차세대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냅니다

Not only us but youngsters of the next generation spend a lot of time in cyber space.

이름 없는, 얼굴 없는 공간인 사이버 공간을

우리는 익명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can express cyber space, which is nameless and faceless, as anonymity.

익명성은 선기능과 악기능이 있습니다

Anonymity includes both right and adverse functions.

선기능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사고의 무한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폐쇄성에서 해방되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right function is that cyber space is becoming a space of healing.
It is a liberation from closed society
because we can imagine liberally with infinite thought experiments.**

역기능은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다치게 하는 악플, 아귀다툼으로
마귀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he adverse function is that cyber space could become a hotbed of vices
caused by quarrel and malicious comments which can hurt each other.**

의명성과 도덕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Actually, anonymity and morality are in an inverse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을 확산하고
**So our second assignment is that
we have to spread the right functions of cyber space**

역기능은 억제할 수 있는 지혜와
그에 따른 정책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while developing wisdom and policy
that can restrain bad functions.**

사이버 공간에서 성별, 학벌은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이나 체면이 파괴되는 안면몰수 하는 행태를
우리는 매일같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In cyber space, people not only destroy gender or educational backgrounds
but injure one's personality or prestige.
We always go ahead without caring at all
about the possible embarrassment and rejection.**

따라서, 저는 사이버 공간을 얼굴이 없는,
즉, faceless 익명성이 아닌 익면성의 공간이라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Thus, I think it's much more proper to define cyber space
the 'faceless' space, not anonymous space.**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은 도덕 해방구가 되어
무도덕 비도덕이 판치는 마귀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Therefore, cyber space is becoming a morality escaping place
where immorality overflows.**

세 번째 과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 폰 집단 중독에서 벗어나 반성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The third task is that we need to get out of mass smartphone addiction
and achieve some composure to introspect and communicate.**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어플리케이션에 몰입하는 젊은이들이
길을 잊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Doctor Howard Gardner judges that today's youngsters,
who are preoccupied with applications, are generation that has never got lost.**

실패를 기피하는 안전 지향주의가 미래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He is considerably worrying about
failure avoiding safety-first policy.**

스마트 폰 중독으로 인해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고
더 큰 추억과 우연한 행복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Owing to smartphone addiction, they've lost generosity of mind.
Also they are going to lose more recollections
and casual opportunities of happiness.**

인생은 난관을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성숙해지고
그를 통해 지혜의 성취가 가능합니다

**The life grows to maturity through difficulties while enduring pains.
We can achieve wisdom by these kinds of hardships.**

집단 중독과 집단최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We need to break out of mass addiction and hypnotism.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정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stly, I'd like to end my speech by passing along a request.
If you truly want to become a smart person you have to put down
your smartphone for a moment.**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의 토론 파트너인 손화철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Thank you.

Next, I'm going to introduce my discussion partner, professor Hwachul Son.

일찍이 제게 제자로 왔다가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의 대가로
제게 스승이 되어 돌아온 기술 철학자입니다

**He was my pupil but currently came back as a teacher for me.
He became a master of ICT
and simultaneously a technology philosopher**

손화철 교수를 소개합니다
This is professor Hwachul Son.

손화철: 안녕하십니까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되는 말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아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Hwachul Son: Hello
Dystopia is an antonym of utopia,
which means a world that nobody wants to live in.**

서울디지털포럼처럼 미래 지향적인 포럼에 와서
디스토피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Some of you might not be swallowing the talk about dystopia
in Seoul digital forum which is future-oriented.**

그러나 디스토피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However, the best way to prevent dystopia is to talk about it.

앞서 황경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잘못되면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s professor Hwang Kyung Sik already said,
the fundamental value of digital world is communication.
But if this communication goes wrong, it may lead to digital dystopia.**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몇 가지 징후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day, I'd like to talk about some of the signs
that show digital dystopia is close at hand.
And also talk about the wisdom that will help us to prevent it.**

먼저 여러분이 말씀하신 디지털 격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First of all, let's talk about digital divide that we are talking about.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연산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전기는커녕 마음놓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Today, some people use smartphones
which have tremendous calculating function**

while some cannot drink water at ease let alone electricity.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이뤘다,
또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Nevertheless we say that we have achieved this enormous development
and are living in a better world than before.**

그러나 이때 우리가 누구인가요?
누구를 위해 좋은 세상입니까?
However, who are ‘us’ in these sentences?
The good world for whom?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디지털 세계에 연결되어있긴 합니다

We have to think about it.
Of course, the poor are also connected with digital world.

그런데 연결되어있다고 해서 모두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결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But this doesn’t mean that everyone is connected.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s isolated unilaterally in the connection.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디스토피아적인 것입니다
We need to take this problem seriously.
Overlooking the digital divide is very dystopian.

두 번째 징후를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디지털 격차에서 상층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연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the second sign.
**The connection problem is even related to you
who are located in upper layer of digital divide.**

디지털 세상에 연결이라는 것은 결국 보통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 기관이 매개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In the end, in digital world,
connection is accomplished by using huge institutions;
incorporations and nations as the intermediation.**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이 연결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이윤이 생기고, 내가 제공한 나의 정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이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However, general users don't really know how the connection is made.
They don't know who controls it, how profits are made
and how the personal information they provided is used in what sense.**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 유출 사태나 위키리كس나 스노든 사건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인터넷조작 및 통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Think about recent issues.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leaks, WikiLeaks,
Snowden case, internet manipulation and control of various nations.**

정부와 기업, 소수 전문가나 정책 결정가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일탈, 범죄 등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Ironically, the mistakes, deviations and crimes
that government, incorporation and a few experts can commit
actually show the power they possess.**

최근에 정보 유출이 돼서 신용카드를 바꾸신 분들 손들어 보시겠어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reissued credit cards because of information leaks?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people.**

정보 유출이 됐으니까 은행을 사용 안 하시겠다는 분들 계십니까?

정보가 유출되니까 휴대전화를 사용 안 하겠다는 분들 계십니까?

**Is there anyone who is going to stop using bank because of information leaks?
Is there anyone who is going to stop using cellphone because of information leaks?**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보를 잘 관리해주길 기다리는 거죠

What should you do then?

We are just hoping for bette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별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There are no other options for general users.

디지털 세상의 강자들이 잘 해줄거라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지구를 떠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It is one of the two.

**Blindly believing powerful of the digital world to
do better or leaving the Earth.**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남들이 연결해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아님 연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In this point, problem of “Who we are” resurfaces.

Are we the ones being connected or connecting?

This problem isn’t finished here.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여러 정보통신 기술들, 예를 들면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은 연결과 소통의 문제를 넘어

Recently developed ICTs,

things lik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over beyond the problem of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언어, 생각, 심지어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문제까지 접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y are closing in fast to the subjects like human freedom, language, thoughts and even humanity itself.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인 1984 를 보통 통제에 관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소설은 언어의 왜곡에 대한 것입니다

People usually think that George Orwell's famous novel “1984” is a story about control.

Actually, it is about the distortion of language.

빅 브라더가 다스리는 나라 오세아니아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In Oceania, ruled by Big Brother, they use new language.

이 언어는 빅 브라더가 싫어하는 단어는 다 없애고

문법들을 매우 단순화해서 단순한 언어를 만든 것입니다

This language is made by excluding all the vocabularies that Big Brother dislikes

and extremely simplifying the grammar.

왜 언어를 단순화 시키는 걸까요?

사람은 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생각합니다

Why do they simplify the word.

People think as they say.

그러니까 말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다스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So, if language is simplified, then thoughts become simple,

Eventually it becomes to control easily.

언어와 관련된 기술들은 우리의 생각의 형식과 내용을 바꿉니다

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Technologies related to language change the form and content of our thought.

Let's talk about the form.

문자 기술과 인쇄술은 사람들이

길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Character technology and typography enabled people to think
at length, systematically and step by step.**

그래서 월터 옹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문자기술과 인쇄술 때문에

철학과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Scholar 'Walter Ong' said,

**the Philosophy and Democracy became possible
due to the character technology and typography.**

정보통신기술은 짧게 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140 자입니다

뉴스피드 길면은 스크롤 압박 이죠, 안 읽습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ends to force to talk short.

Twitter has a 140-character limit.

If news feed is too long, it's 'Stress of Scrolling' and we don't read it.

디지털 포럼에 와서 발표를 하는 데 철학자한테 10 분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없이 이야기를 막 이야기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The philosopher is told to present 10 minutes in Digital Forum.

So I'm busy with talking.

황 교수님께서 아까 '소통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정보소통기술에서 허락하는 종류의 소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Prof. Hwang said 'Communication is important',

bu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stricts the kinds of communication.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책 보셨습니까?

좋은 책입니다, 사실

Let's go back the content.

Have you heard of a book named, 'Google God Knows Everything' ?

It's a nice book, indeed.

제목이 이렇게 좀 과격하게 붙었는데요

It is titled like this, somehow radically.

구글의 검색기능, 빅 데이터를 이용한 검색기능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나의 과거사용기록을 다 분석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나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Google's search function, the search using the Big Data,
analyzes my search history
and provides me the right information I was just looking for.**

때로는 내가 아는 내가 원하는 걸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신입니다, 구글 신.

**Sometimes, it knows what I want.
So it's a God, Google God.**

자, 구글 신이 주신 정보를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By the information which god presented, my thoughts and language are re-composed.
Then, who am I?**

우리는 흔히 기술을, 우리가 나의,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We usually thought, we use,
I use technology for my own purpose.**

그러나 혹시 기술에 나의 목적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술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But, aren't we adjusting our purpose to the technology?
Does the technology make me?**

대단한 독재자나 대단한 컴퓨터가 있어야지 디스토피아가 오는 게 아닙니다

Distopia does not come by a great dictator or computer.

'기술의 격차'라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틀, 기술사회의 문법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나의 자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When neglecting a stark reality, 'Technology Gap'
or once one think it's easy to adapt oneself to the given frame or rule of technology
society,
ironically, one's freedom is gone.**

디지털 디스토피아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만이 물어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하기 어려워 졌을 때
그 물음이 무의미해 졌을 때, 그 물음이 완전히 잊혀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So digital dystopia arrives when it's hard to answer the question 'Who am I?',
the most simple and basic question that only people can ask
When this question become meaningless or forgotten, there comes the dystopia.**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Connected with everything but losing me.
Then, what should we do? Totally, new Innovation is needed.**

그런데 이 혁신은 시장 경쟁의 어떤 결과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란 고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But the innovation is not gained by the result of the market's competition,
but should come from thinking about the question 'What is the good world?'.**

좋은 세상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기술개발을 할 때 기술격차가 해소되는가,
이것의 사회적 영향력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회.
**Then, what's the good world?
The world worrying about, when developing the technology,
'Would be the technology gap resolved?' or 'What its influence upon the society'.**

다수의 비밀은 보장 되지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비밀은 없는 세상
무작정 개발하고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공존과 소통을 더 우선시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The better world is not where guarantees majority's secret but doesn't for the minority,
But rather puts real coexistence and communication first than exploits recklessly and
just pursues the profit.**

이런 세상이 올까요?
저는 디스토피아 발표자니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Would this world come, one day?
Because I am presenting the dystopia, I am very skeptical about this.**

이런 세상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I think this world wouldn't come easily.
But we should not give it up, right?**

그래서 간단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은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세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So I would like to tell my own simple thought.

Firstly, individual should secure his own time and world.

1984 의 원스턴은 공책을 몰래 사서 일기를 쓰는 것으로 자기의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저항이 되었습니다

In 1984, Winston started to do his self-reflection

by buying a note and secretly writing a diary.

And that self-reflection ran into resistance.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성찰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owever, it's not easy at first,

because reflection needs to be practiced as well.

더구나 빅 브라더는 일기, 성찰 이런 거 싫어합니다

빅 브라더가 좋아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내가 오늘 점심에 먹은 거 찍어서 올려서 전세계에 알립니다

Besides, Big Brother dislike things like diary and self-refection.

The world Big Brother likes is a world

which you take a picture of what you eat for lunch today,

upload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서로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세상이 빅 브라더가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ach other clicks 'Like', and that's the world Big Brother likes.

I think we should resist to this kind of flow.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무작정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So do the companies.

They should not recklessly develop but reflect for the development.

'신제품 사면은 인생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왜 개발을 하는지', '이 제품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We should not lie as saying 'This new product will change your life',

but talk about 'Why do we develop?', 'What is the validity of this product?'

and 'What is the good world we think?'.

기업들이 스스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Companies won't do this by themselves.
Consumers' pressure is needed.**

정부와 대학은 기업의 하수인이 될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선도해야 합니다

**Government and colleges shouldn't be the puppets of the Company,
but should study about the technology'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ce,
and make policies toward this and lead the companies.**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 인지를 전문가들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Plus, when developing a new technology, whether to develop it or not and
what direction should they take' should not be decided only by the experts
but citizens should take part on it too.**

이것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필요합니다
**Companies won't do this by themselves as well.
Pressure is needed.**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함께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토론이 일어나야 합니다
**Furthermore, the discussion that all people participate in
and talk about what's the good world should be raised continuously.**

이것에 정보통신 기술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수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비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다수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On thi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e used.
I think it as not an abnormal development for the minorities' short-term profit,
but a normal development for the majorities' long-term profit.**

이것이 지혜로운 혁신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듬는 성찰과 그 성찰에 바탕 한 소통
**This is wise innovation.
Reflection elaborates my thoughts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at.**

이 소통이 바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지혜로운 혁신, 혁신적 지혜의 열쇠가 될 것 입니다
**This communication will be a key for
common good-oriented wise innovation, innovative wisdom.**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아 그래 넌 뭐 철학자니깐 맨날 이상적인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기술 개발을 할래?'

기술개발, 좀 느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When I say like this,

**people say 'Yeah, you are always saying ideals because you're a philosopher
but when are you going to develop technologies with that?'**

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slowed somehow.

그러나 사람이 이상적인 생각을 포기하면 바로 그 순간 디스토피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But once people give up this ideal idea, Dystopia,
the world nobody wants will arrive at that moment.**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대답>

김성준: 네, 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디지털 유토피아 대 디지털 디스토피아

**Sungjun Kim: Yes, I heard great words of Prof. Sohn.
Digital utopia versus digital dystopia.**

다 유토피아만 말하기 때문에 디스토피아 발음이 잘 안되네요

황경식 교수님과 손화철 교수님의 말씀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Everyone's saying only Utopia, so pronouncing dystopia is not familiar with me.
Heard good words of Prof.Hwang and Sohn.**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you several questions.

Thanks for your effort.

먼저, 그렇게 두 분이 극단적인 대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만은,

황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유토피아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

**First of all, your opinions are not extremely contrasts to each other
but when I listened to Prof. Hwang, utopia seems to be just close at hand.**

또 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However, when I listened to Prof. Sohn,
I am concerned about ‘Are we in that dangerous situation?’**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정말 유토피아가 그렇게 가까이 온건지, 또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야되는지
간략하게 서로 한번 대비되게 말씀을 해주시죠

**To help viewers and audiences to understand,
Each of you please tell us in contrast and in brief about ‘Is utopia has arrived that
close?’ and ‘Should we worry about dystopia that seriously?’.**

황경식: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Kyeongsik Hwang : I think,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a double-edged
sword.**

우리를 정보 이상향인 유토피아로 이끌 수도 있고
또 정보 디스토피아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
정보통신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 conside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lead us to the information utopia or drive us out to the dystopia.**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보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거주민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ether its information utopia or dystopia,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at mind do the residents live there have .**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거주민들의 성찰적 지혜 또는 혁신적 지혜가 무엇보다도
여기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s I mentioned before,
above all, residents' introspective wisdom and innovative wisdom
is the key in here.**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정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In the past, we desired information utopia but it was a pie in the sky.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여건들이 이렇게 충족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However, since many conditions are met these days ,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developed,**

우리가 정말 성찰적 지혜를 각성한다면

우리 눈 앞에 유토피아가 당도해 있습니다
**the utopia will spread out before our eyes,
if we truly awake introspective wisdom.**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경우에
그 유토피아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Therefore in case we grasp those wisdoms, the utopia can be realized right here, right now.

여러분들 티비 CF에서 많이 봤습니다 만은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이건 간에
약간 스마트 폰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ike you've seen on TV a lot,
in my opinion, nowadays whether they're adults or kids, lots of people are a bit addicted to smartphones.**

김성준 : 뭐 그런 면이 있지요
Sungjun Kim : Yes, kind of.

황경식 : 스마트 폰에 중독 됨으로써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족의 가치 라던지 대화의 가치 라던지 이런 것들을 잃고 있고
우리 손교수가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마저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yeongsik Hwang : Being addicted to smartphone,
we are losing a lot of valuable things
such as value of family, conversation
and also ourselves as the professor Son said.**

우리가 잃고 있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묵념을 할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찰적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혁신적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성찰하고 철학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herefore, it is the moment of silence for the valuable things that we are losing
is the time for us to reflect and keep philosophical distance
for comprehending the introspective wisdom and the innovative wisdom.**

김성준: 성찰적 지혜만 터득할 수 있으면은 유토피아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황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ngjun Kim : The professor Hwang said utopia will arrive right in front of us
only if we can learn introspective wisdom.
How do you think about this, professor Son?**

손화철: 네, 저는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스마트 폰을 하루 동안 쓰지 말고 감상문을 써 오라고 했습니다

**Hwacheol Son : During the lecture in the college,
I told students to write a reflection paper after doing digital detox.**

그랬더니 감상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Then, there were variety of stories in the reflection paper.

뭐 애인하고 엄마가 걱정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For example, there was a student,
who worried about his girlfriend and mom so much
that they got lots of problems.**

하루 종일 시계를 못 봐서 불편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There're also student felt uncomfortable because they couldn't
look at the digital clock all day long.**

집에 가서 하루 놨다가 집에 가면은
문자가 한 백 통 정도 걱정하는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And the other students expected
he would get a hundred text messages
if he left a phone at home for a day,**

집에 가서 딱 펴보니까 스팸 문자 두 개 밖에 많아서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뭐 이런다고 하는데
**But only to found that he/she got just 2 spam messages
when came back home.
So he regretted 'why do I live life like this'.**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오케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서 불편하더니 불안하더니
**After having heard of all their sayings, I asked them,
"Okay, so was it inconvenient and uneasy without smartphone?"**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불안했다고 얘기합니다
Then many students answered they felt uneasy.

김성준 : 예,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Sungjun Kim : I would also say yes for that question.

손화철 :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Hwacheol Son : Yes, I think this is really serious problem.

동시에 굉장히 의존적이 되고, 동시에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as many people are getting us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depend on it, they also become dependable and favorable toward this environment.

저는 그것이 디스토피아의 뭐 이것은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디스토피아의 매우 심각한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I regard this as one of the trivial examples of dystopia, but this is a critical sign of dystopia.

김성준: 이런 말씀하신 디스토피아의 징후들을 잘 고쳐 나가면서
깊은 성찰을 하면은 결국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두 의견을 뭉쳐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ungjun Kim : Two opinions can be said as, if we improve the sign of dystopia and have deep insights', eventually utopia will arrive.

지금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We are running out of time, so we would like to ask you a last short question.

'소통과 성찰이 지혜를 여는 열쇠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한 마디로 압축해서
To encapsulate today's lecture about 'Communication and insight are the key to the wisdom', in one sentence,

뭐 고사성어를 인용하셔도 좋고 직접 어떤 한 키워드를 말씀하셔도 좋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신다면 뭐가 될지 손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it's good to use idiom or you can pick a keyword personally, to summarize in one sentence, what would it be?
Tell us first, Professor Son.

손화철: 이번 세 번 세션의 주제가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Hwacheol Son : The theme of this third session was a trust, right?

김성준 : 예, 믿음이었습니다
Sungjun Kim : Yes, it was a trust

손화철 : 있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으라는 거죠
Hwacheol Son : In the bible, there is a saying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John 20:29).'

**But it's about God.
It means although you can't see God, believe him.**

그런데 구글 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구글 신에 대해서는 보여도 의심해라, 보여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저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t's not about Google God, isn't it?
When it comes to Goolge God, blessed are those who have seen and yet have don't believed.
I believe that sums up well what I want to say.**

김성준: 구글 신은 보여도 믿어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세션 마무리하는 말씀과 함께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죠.

Sungjun Kim : Don't believe Google God even if you can see it.

Okay. Professor Hwang give us the keywords with the concluding remarks.

황경식: 저희들은 지금 말띠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말띠의 해에 가장 먼저 연상되는 사자숙어는 주마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yeongsik Hwang : We are living in the Year of the Horse.

It first reminds me of idiom 'jumagansan'.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면,

우리는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To reflect our life in the socie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We are under an illusion that a man running a horseback is seeing the world.**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모든 경험과 삶이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되어서
대충 대충 우리는 헐레벌떡 숨이 찬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Because the world is so changeable and every experiences and lives are proceeding too fast,
I think we are living a life gasping and puffing, cutting the edge.**

그래서 저는 주마간산 대신에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를 대신 제안하고 싶습니다
So instead of 'jumagansan', I would like to recommend the idiom 'jumagapyeon.'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y ourselves, we should whip this running horse not to run faster,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던 정보통신기술의
그 목적가치인 소통에 좀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채찍

혁신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채찍을

우리 스스로에게 칠 그런 절실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but I think it's desperate time for us to give ourselves the rod,
the rod to realize the fundamental value of communic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o realize the innovative wisdom.**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y ourselves, we should whip this running horse
not to run faster.**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던 정보통신기술의

그 목적가치인 소통에 좀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채찍

**It's desperate time for us to give ourselves the rod,
the road that can make us to realize innovative wisdom and
the fundamental value of communication.**

혁신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채찍을

우리 스스로에게 칠 그런 절실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This communication is the purpo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we've forgotten today.**

서양에서 철학이란 말을 필로소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In Western, they use a word philosophy.

As you all know,

그것은 러브 오브 위즈덤 이라는 말인데요

지혜에 대한 사랑과 동경인데

it means love of wisdom

and the passion and adoration toward wisdom,

혁신적 지혜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바로 그것은 상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which is sending a critical message to us

who need innovative message.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정말 그 철학적인 지혜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철학적인 프로젝트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think now is our the most core project, the philosophical project

which make us to think about that philosophical wisdom

and which make us to born again as a wise person.

김성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황교수님과 손교수님 주마가편 그리고 디지털 신은 보여도 믿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 참 새겨들을 만한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Sungjun Kim : Thank you so much.

Professor Hwang and Son's two sayings, 'jumagapyeon' and 'Don't believe digital God, even if you see it' are the words to grave in heart.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Give them an applause once again.

자 두 철학자의 말씀 들으셨죠

디지털 신은 보여도 믿지 말라는 뭐 그런 교훈

There was a lecture from two philosopher.

A lesson was that 'Don't believe digital God, even if you see it.'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극복하고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그런 교훈으로써 다짐을 해봐야 할 것 같구요

It is a lesson that we should make assurance

to overcome dystopia and head to utopia.

또 황 교수님 말씀대로 주마가편

우리가 말을 달리듯이 빨리 디지털 세상을 스피디하게 살고 있지만

**Also, as professor Hwang mentioned, 'jumagapyeon',
we are living in a digital world as fast as running a horse.**

그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성찰할 기회를 찾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자세로 우리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되겠다

But we should make an opportunity to reflect ourselves again,

and agonize our life by giving a rod to ourselves.

이런 말씀으로 요약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I think this can be the summary.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두 번 째 세션, 믿다 믿음 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o this point, it was today's second session, trust in, the session of trust.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서울디지털 포럼 2014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ntinually, in this afternoon Seoul Digital Forum 2014's
instructive program will be prepared.**

끌까지 계속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pe you attend this forum till the end.

오후 세션은 SBS 김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fternoon session will start at 1:05 hosted by the Hwan Kim, the announcer of SBS.

Thank you.